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강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 통과
외부회계감사 대상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하자보수 청구
하자담보책임기간에만 가능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근절을 위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및 입주자대표회 감사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도별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은 국토부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2인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 감사 1명 이상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기자자동차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리마, 릴롱게에서 청소년 교육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결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1회)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 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분쟁 해소 및 법적용을 명확하게 한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다.

그동안 하자보수 청구는 하자담보책임기간(1, 2, 3, 4, 5, 10년) 내에 발생한 하자라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2, 3, 5, 10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r)에 인도일을 등록하게 해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분쟁을 조정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행 결과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분양주택의 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금지하도록 했다. /뉴스

앱마켓에서 인기 끄는 사진앱

나인캠·빙글스냅 등... 네이버·카카오도 뛰어들어

바캉스 시즌에 사진이 빠질 수 없다. 사진앱 하나만 잘 사용해도 전문가 안부러운 멋지고 개성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SNS 발달 속에 사진 앱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앱마켓에서 인기를 끄는 사진 앱을 소개한다.

팬타그램의 '나인캠(9cam)'은 9개의 핵심 필터만 제공하는 독특한 사진앱이다. 음식, 풍경, 인물, 사물, 셀프촬영 등 자주 쓰는 9개의 필터를 고를 수 있다. 이용자는 필터 선택의 고민을 줄이며 어떠한 필터를 택하든 만족스런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지난 7월 아이폰 앱스토어에 등장한 나인캠은 출시되자마자 인기 앱 1위를 차지하며 이벤트 없이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서비스 준비 중이다. 일명 '움짤'로 불리는 움직이는 효과 사진앱도 있다. VLAB의 '빙글스냅'은 부분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사진에 넣어 입체적이고 살아숨쉬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진 찍듯이 촬영 버튼만 누르면 이미지 중 일부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정지상태인 독특한 사진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다.

벤처기업 외에도 네이버, 카카

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IT기업도 사진 앱에 뛰어들고 있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만든 사진·동영상 앱 '스노우'는 동물모양 스티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노우는 이용자 얼굴을 자동 인식해 감자, 다람쥐, 생쥐의 형태처럼 재치있게 꾸며주는 앱으로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싸이메라'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일등 공신이다. 싸이메라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인물보정과 성형기능을 내세우며 남미에서 대성공을 거뒀다. 특히 브라질에서 큰 인기를 끌며 최근 전세계 다운로드 2억건을 넘어섰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선보이며 실적 개선에 보탬을 기대한다.

카카오는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재미있게 꾸미는 셀프촬영 앱 '카카오톡 치즈'를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치즈는 얼굴 인식 기술이 적용된 100종의 움직이는 스티커 필터, 카카오톡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프로필 이모티콘 70종, 얼굴 촬영에 최적화된 뷰티필터 20종 등을 제공한다. /뉴스

금융정보 한눈에 정리한 포털 '파인'

금감원, 내달 개설... 금융상품·금융꿀팁 등 다뤄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한 눈에 정리한 인터넷 사이트가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http://fine.fss.or.kr>)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FINE는 금융정보망(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의 약자임과 동시에 '금융'을 의미하는 영단어 'Finance'의 축약어이기도 하다.

해당 사이트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소비자 정보' 코너를 비롯해 각 협회와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모았다.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금융꿀팁은 물론 금융피해 예방·구제, 서민중소기업지원, 금융회사, 기업정보, 금융통계, 금융교육 등을 다룬다.

현재 판매 중인 금융상품의 금리, 수수료, 가입조건 등 비교 및 검색이 가능하고 개인의 금융거래내역, 휴면

계좌내역, 카드 포인트 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 번에' 등 실용 금융정보를 200가지 선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매주 1~3가지씩 폼아 사이트 내 '금융꿀팁 200선' 코너에 게시한다.

또 내년에는 노후설계에 필요한 진단과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연금어드바이저'를 제공한다. 연금 수령정보와 예상 퇴직연령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노후대비에 필요한 자금을 진단하고 투자성향 등을 분석해 적합한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 동의를 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금융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뉴스

국토부, 자율주행 실험도시 '구축' 첫삽 떠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테스트베드 개발' R&D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에 첫 삽을 떴다.

레벨3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한된 조건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시스템 요청 시 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K-City 구축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R&D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연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위탁연구기관 10개 기관이 전부 참여한다.

이 연구과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실제 도로환경을 본뜬 실험도시를 구축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분야의 경우 전용도로 기반 레벨3의 자율주행 안전성, 자율주행 안전성, 고장 시

안전성, 통신 보안성 확보 위한 평가기술 및 기준안 도출 등이 목표다.

국토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UN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 중인 자율주행차 국제기준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기술들이 국제기준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전망이다.

실험도시(K-City)의 경우 경기도 화성 교동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65만평) 내 ITS 시험로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실험도시·시가지 상황을 반영해 자율

주행 실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실험도시의 상황을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제 도로 환경과 달리 특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이 가능하다. 각종 사고위험 상황 등 연구자가 필요한 상황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평가 시도로 유용하다.

국토부는 "실험도시의 구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K-City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라며 "정부 R&D과 제수행 뿐 아니라 민간 제작사, 대학 등 연구기관의 개별 연구에도 활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레벨3 상용화에 필수적인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우선 구축한다. 도심부 등 기타 도로도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리”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랜 피드백의 마침
- 스물~스물 올리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님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리” 실제 설치!

청소액 [막스]

막스 화학 (500-1000ml)을 배수구 하부에 투입하면 배수구 하부에 침착된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여 배수구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 막스 화학은 수시로 최신의 유효성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효성분은 배수구 하부에 침착된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여 배수구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신규대

신규대 물이 잘 빠지고 잡내 냄새가 없어 깨끗해요

여성친화

씨서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수업의

수업의 물이 배수구가 막혀있고 악취가 자꾸 발생해요

식용독

식용독 사고 발생에서 예방 되었어요